

<2012년 5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잔칫집에 가는 자는 밥을 먹지 않고 가듯이 섭리를 뛰며 주님의 사명을 하는 자들은 그같이 해야 된다.
2. 집에서 실컷 배불리 먹고 잔칫집에 가서 잔칫상을 받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집에서 배불리 먹고 왔네.” 하며 투정한다.
3. 할 일을 놓고 먹고 마시는 자는 지혜 없는 자다.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먹으면 잔칫집 음식이다.
4. 잔칫집에 가는 자는 집에서 몇 술만 뜨고 가듯이, 사명자는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매일 그같이 하다가는 사명 못 한다. (아멘!)
5. 먹다가 판 깨지고, 자다가 판 깨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주님이 시키신 일의 판이 깨진다.
6. 성공자는 다른 것은 포기해도 오직 성공길만 포기하지 않고 쫓는다.
7. 어떤 면에서든지 선수가 되는 자는 1단계로 수십 번 해 보다가, 2단계로 수백 번 해 보고, 3단계로 수천 번 해 보고, 4단계로 수만 번 해 봐서 착오 없이 할 때 선수가 된다.
8. 첫 번째 아담은 타락함으로 실패했고, 두 번째 나사렛 예수님은 육신이 죽어서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시대 사명자는 핍박 때문에 육신이 갇혀서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성자 주님께서 육신 가지고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할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9. 6수는 끝나는 수다. 사탄 수다. 토요일도 6수로 일주일의 끝나는 수다.

6000년은 끝나는 수다. 7000년은 회복하는 수다. 7수는 하늘 수로 이상적인 수다. 성공 수다.

10. 6까지는 사탄과 겨루게 된다. 하늘 편은 7수다. 고로 끝까지 가면 이긴다. 6수보다 한 수 높은 단계는 사랑 수다. 성자 주님을 100% 사랑하면 7수가 된다. 마지막 7수인 1000년 성약역사 수는 1000년 사랑의 혼인 잔치 수다. 사랑의 수다. 고로 누구나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 수보다 한 수 높여 7수, 곧 사랑 수로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11. 6수까지는 믿음, 말씀, 찬양, 감사, 기도, 인내, 순종하는 수다. 그래도 사탄은 우리와 겨룬다. 6수에서 마지막 1수를 더하면 7수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탄은 사랑하지 못하니 6수에서 끝난다. 성자 주님을 사랑해 버리면 사탄의 것은 끝난다. 사탄은 사랑의 반대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버리면 끝난 것이다.

12.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다.

13. 간절한 마음만 갖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여라. 마음을 먹고 행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14. 진실로 간절한 소리는 마음이 뜨겁다. 고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실현한다.

15. 간절한 마음은 마치 어떤 것을 만들 때 정성 다해 만드는 격과 같다.

16. 성자 주님은 진실하시고 참이시다. 고로 인간이 진실하고 참일 때 주님과 통한다.

17. 간절하지 않아서 가다가 만다.

18. 간절하지 못해서 기도는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19. 자기 영이 사망권의 슬픈 곳에 있으면, 그 육이 늘 슬픈 노래나 부르고 인생의 슬픈 탄식 소리를 애달프게 낸다.

20.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노래하고 춤을 추지만, 그 영은 더 사망으로 빠져 고통을 당하고, 그 영향을 받아 그 육도 더 흑암권에서 노래하고 춤을 춘다.

21. 사탄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니, 사탄은 성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로 우리가 구원만 받으려 하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하기 쉽다.

22. 사탄에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으니, 성자 주님과 성자의 육신을 절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자 주님과 성자의 육신을 절대 사랑하면 사탄을 완전히 멸한다.